

되풀이되는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학부모 걱정 '태산'

종합대책 요구하며 오늘 총파업 당국, 도시락 등 대안 마련했지만 학부모 급식·돌봄 '공백 우려' 매년 반복, 합의책 마련 목소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인 만큼 교육 당국의 원만한 합의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돌봄·급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들에 급식·돌봄 공백이 발생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식, 도시락 등을 지급하는 대안을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학부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체식은 빵과 우유 등으로 구성됐다. 학부모들은 "올해도 급식 파업을 한다는데, 아이가 밥 대신 밀가루를 먹으면 배 아파하는 편이라 걱정된다", "저희 애들은 학교 끝나고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오후까지 학원에 가야 돼서 대체식으로 부족할 것 같아 도시락을 쌀 생각이 다" 등 우려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급식실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급식실 노동자들은 폐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2년 동안 급식실에 근무한 이 노동자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고, 이후로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건강검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적절한 합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을 확대해 내부 갈등, 임금 체계 등의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매년 파업이 반복됨에도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의 독자적 임금체계 마련과 폐암 등 산업재해 종합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높다고 지적하며, 시도교육청이 기본급의 2.7% 수준만 올린다고 꼬집었다.

시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 9월부터 8차례의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지

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인식 차이도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벌어지는 파업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법 개정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원 238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교총은 "어떤 이유라도 학생을 볼모 잡고 희생양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자율주행버스, 본격적으로 청계천 누빈다

서울시, 오늘부터 시민 탑승 '1호 승객'으로 오세훈 시장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가 본격운행을 시작한다. 이달 25일부터 시민 누구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행 시작을 알렸다.

오세훈 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를 돌아다니는 청계광장까지 약 3.4km를 이동하면서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차 버스의 전경에는 대형 전면창(피노라마 루프)이 설치됐다.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며, 차 안에서 불거리를 제공하는 미래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기술도 선보인다. 안전한 탑승을 위해 안전벨트 자동인식, 승객 기립 자동방지 등의 기능도 함께 설계됐다.

시는 25일 두 대를 시작으로, 내달 12일부터는 1대를 추가해 총 3대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탑승 정류



24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일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포식'을 마친 후 탑승한 자율주행버스가 세운상가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다. /뉴시스

소는 청계광장남측(흥인지문방향), 세운상가 앞(청계광장방향) 총 2개다.

운행 구간은 청계광장~세운상가~청계광장까지를 순환하는 총 3.4km이다. 안전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청계5가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운행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점심시간인 정오

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안전 등을 고려해 운행을 잠시 멈춘다. 토요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점심 시간 없이 운영한다.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청계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운행하지 않는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 'TAP!'을 설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ik1@

구미대, 현장체험으로 체험스킬 올려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호텔 등서 직무역량 높여

구미대학교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가 인천에 소재한 인천국제공항, 파라다이스시티카지노, 하워드존슨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생생한 현장 체험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학과 재학생 70명과 교수 6명은 21, 22일 양일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체험으로 인천에 소재한 공항, 카지노, 호텔을 각각 방문했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 견학을 넘어 현장에서 실무 특강을 듣고 생생한 체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였다.

실무 특강은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인사팀장과 하워드존슨 호텔 대표, 인천국제공항 운영서비스그룹장이 각각 맡았다. 또한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를

위해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와 하워드존슨 호텔과는 채용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교육을 학과 교육과정에 반영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약속했다.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는 국내 최대 외국인전용 카지노 규모를 자랑하며, 이외 국내 3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하워드 존슨 호텔은 전세계 80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호텔 기업인 워너 호텔 그룹의 브랜드 중 하나다.

석미란 학과장은 "이번 현장 체험으로 채용협력 업무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 활성화는 물론 취업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고려대, 3개 창업기업 'CES 2023' 혁신상

ZERC·큐심플러스·스마트스 수상

고려대학교가 2023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IT

전시회다. CES 혁신상은 CTA가 기술력, 디자인, 독창성 등 여러 관점을 고려해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최고의 영예'로 불리기도 한다. 모든 혁신상 수상 제품은 마케팅을 위해 CES 혁신상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CES 웹사이트에 제품이 노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고려대는 2022년, 2023년 2회 연속으로 CES에 참가하게 됐다. 고려대에서는 이번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설립한 원창업기업인 ZERC(Zero Energy Radiative Cooling), 노광석 정보통신기술연구소 교수가 설립한 큐심플러스, 손호정 보건과학과 대표가 설립한 스마트스 등 총 3개 팀이 혁신상을 수상한다.

ZERC는 에너지 소모없이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차세대 냉각기술인 '복사냉각 컴포지트 시트'를 선보였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중소 긴급자금 지원

최대 3000만원 저리 지원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이전(10월 넷째주) 대비 11월 2주 현재 최대 60% 이상 감소했다. 이에 시는 긴급자금융자와 매출 활성화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가칭)'을 이태원 일대(이태원 1·2동)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즉각적으로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연 2.0%(고정

금리) 저리로 공급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용자지원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빠른 지급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한도를 우대하는 등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했고, 이태원 인근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희망자는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하나은행 이태원지점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